

자기수용과 가족용서가 가족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조절효과

Effects of Self-acceptance and Family Forgiveness on Family Cohesion: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신선화*, 정구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Sun-Hwa Shin(ffssh@daum.net)*, Goo-Churl Jeong(gcjeong@syu.ac.kr)**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자기수용과 가족용서가 가족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1개 대학교의 대학생 376명(남자 188명, 여자 1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는 위계적 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통해 분석하였고, 단순주효과검정은 분산분석을 수행한 후 도식으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자기수용과 가족용서, 가족응집력 간에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자기수용과 가족용서는 가족응집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수용 및 가족용서와 가족응집력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자기수용이 가족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은 남자가, 가족용서가 가족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은 여자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족관계의 증진을 위한 자기수용과 가족용서에 대한 시사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자기수용 | 가족 | 용서 | 가족응집력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among self-acceptance, family forgiveness and family cohesion. It was conducted to measure self-acceptance, family forgiveness and family cohesion from 376(188 male, 188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 according to gender was analyzed through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As a result of analysis, first, there were positive relationship, among self-acceptance, family forgiveness and family cohesion. Second, self-acceptance and family forgivenes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family cohesion. Third, gender had moderating effect within the relationship of self-acceptance, family forgiveness and family cohesion. Specifically, impact on family cohesion of self-acceptance is greater in men, and impact on family cohesion of family forgiveness is greater in women.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were explored in relation to the importance of self-acceptance and forgiveness that could be taken to improve family cohesion. In addition, this implication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ovided.

■ keyword : | Self-acceptance | Family | Forgiveness | Family cohesion |

* 본 연구는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4년 01월 03일

수정일자 : 2014년 02월 06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2월 13일

교신저자 : 정구철, e-mail : gcjeong@sy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가족은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속하게 되는 최초의 사회이면서 가장 일차적인 지지집단으로, 인간의 발달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가족 관계의 질은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2005년 시작한 제1차 가족실태조사와 2010년의 제2차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자녀교육이나 가사 및 양육부담과 같은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모든 하위영역에서 갈등 정도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민이 있는 청소년이 주로 상담하고 싶은 대상도 1차 조사에서 친구가 37.2%, 어머니가 31.9%, 아버지 3.9%였으나, 2차 조사 결과에서는 친구가 대폭 증가하여 50.4%로 나타났고 어머니는 29%, 아버지는 0.9%로 감소되는 등 또래관계의 영향은 커지고 가족관계의 질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1].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이 최근 가족관계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신건강[2][3], 학교폭력과 공격성[4], 우울[5][6], 자살생각[7-9][41], 자아정체감[10], 청소년 비행[11][12] 등 각종 개인적, 사회적 문제들과 관련되어 연구되고 있다. 장운옥[4]이 중학생들의 학교폭력피해경험과 가족건강성을 연구한 결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집단에서 학교폭력피해자의 공격적 대처행동이 더 낮게 나타났고, Cassidy[12]가 219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와 청소년 범죄를 경로 분석한 결과 가족배경이나 심리적 변인들을 통제해도 가족관계는 청소년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절도와 기물과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윤우석[11]이 5,360명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5년 종단 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이 느끼는 부모와의 유대감인 애착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학대 경험도 청소년 비행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만족도가 자아정체감 수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10], 대학생의 가족스트레스

와 부정적 정서, 자살생각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족 스트레스는 부정적 정서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에도 불구하고 자살생각에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최윤신 등[8]의 연구에서도 가족기능이 대학생들의 자살사고에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관계의 문제는 청소년 비행이나 자살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와 성공적 노화를 연구한 결과에서도 가족관계의 모든 하위 요인이 성공적 노화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특히 배우자관계와 손자녀관계가 성공적인 노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13], 가족관계는 생애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가족응집력을 들 수 있다. 가족응집력이란 '개인이 가족 내의 다른 성원들과 분리 또는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이다(Olson, Russell, & Sprenkle, 1983: 최정선, 이정우, 1999에서 재인용)[14]. 즉, 가족응집력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심리적 친밀감으로 가족응집력이 높은 가족은 가족 구성원 간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Juang과 Alvarez[15]는 중국계 미국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족응집력과 아시아계에 대한 지각된 차별, 외로움, 불안 및 신체화 증상을 연구한 결과 가족응집력은 외로움과 불안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화 증상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특히 가족응집력은 차별과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낮은 가족응집력 집단은 차별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불안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가족응집력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차별의 수준이 높아져도 불안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아 청소년들이 차별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불안을 다루는 데 매우 의미 있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Ierago 등[3]이 유전적 위험 요인을 통제한 후 가족관계의 질과 부적응이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두 변수 간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 가족관계의 질이 높은 경우 적응 집단과 부적응 집단 모두 낮은 수준의 정신병리 점

수를 보이며 두 집단 간 유의한 정신병리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와 가족응집력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국외의 경우와 유사하게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가족관계와 관련이 있음을 검증하였다[2]. 또한 최정선과 이정우[14]는 도시에 거주하는 주부 433명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인 변인과 성역할 태도, 의사소통 만족도, 내외통제성 및 생활수준인지도와 같은 심리적 변인을 통제한 후에 가족응집력과 가족 적응력이 가정관리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족응집력만이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노인을 대상으로 가족응집력에 대해 연구한 결과에서도 가족응집력이 노년기 스트레스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16], 가족응집력이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 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응집력은 개인의 정신건강의 다양한 측면 즉, 스트레스, 우울 및 불안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개인과 사회의 안정을 위해 가족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의 질을 낮추는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부정적 정서가 전혀 없는 이상적인 가정은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이유로 나타나는 가족 간의 부정적 정서를 어떻게 해소하는가이다.

이러한 부정적 정서와 관련하여 김사라형선[17]은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 대인관계가 자기수용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는 고등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자기수용을 연구한 결과 대인관계와는 강한 정적 상관관계($r=.70$)가 나타남을 확인하였고, 우울 및 불안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여 자기수용과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의 관계를 밝혔다. 자기수용이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만족스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으로(Maccines, 2006: 김복인, 이인수, 2013에서 재인용)[18], 타인의 인정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긍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때로는 무조건적 자기수용이라고 사용되기도 한다.

Maslow는 자아실현을 이룬 사람들의 중요한 준거 중 하나로 자기수용을 제안하고 있으며[19], 행복을 의미하는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요소에 자기수용이 포함되는 등[20],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높은 차원의 심리적 개념에 자기수용이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 김지운과 이동귀[21]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와 행복이 자기수용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김복인과 이인수[18]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자기수용에 관한 연구에서도 부모에 대한 정서와 공감 지각, 삶의 만족도, 긍정 및 부정적 정서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가족관계와 자기수용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자기수용이 가족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Epstein과 Feist[22]의 연구에서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자기수용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타인수용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어, 자기수용과 타인수용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에서 타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까지 수용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가족에 대한 용서가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된다. 용서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상대를 향한 부정적인 감정과 사고와 행동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Enright, 2004: 김진하, 김미경, 현명호, 허정선, 2012에서 재인용)[23]으로, 자기수용과 더불어 부정적 정서에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된다. 박경미와 고재홍[24]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외상후 스트레스에서 용서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는데,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에 대해 부모에 대한 용서 수준이 높은 집단은 외상후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한 반면, 부모에 대한 용서 수준이 낮은 집단은 폭력경험이 높아질수록 외상후 스트레스가 급속히 증가하여, 가족 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용서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용서는 대학생들의 분노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25], 우울과도 정적 상관이 있으며[26], 부부 간 결혼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27-29], 궁극적으로 행복[30][31]과 삶의 만족[32]을 향상시킨다.

Ceyhan과 Ceyhan[19]은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자기

수용을 연구한 여러 선행연구들이 자기수용과 함께 성별을 매우 중요한 변수로 취급하며, 성별에 따른 자기수용의 수준차이를 다수 보고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김광웅[33]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을 통제하고 자기수용이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 가족용서 척도를 개발한 이윤희와 서수균[34]의 연구에서도 개발 당시 가족용서 수준에 성별 차이가 나타난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도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은 청소년과 성인기로 이어지는 과도기이며, 직업의 선택, 결혼에 대한 가치관 등 삶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결정에 강한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강력한 지지 집단은 가족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자기수용과 가족용서 경험이 가족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기수용 및 가족용서와 가족응집력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자기수용과 가족용서가 가족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자기수용과 가족용서는 가족응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대학생의 자기수용과 가족용서가 가족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목적에서 성별 조절효과가 중요한 요인이므로 남녀의 비율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각각 200명씩 조사하였다. 조사를 위해 계열별 학과수와 입학정원을 확인한 후 연구자들이 계열별로 비례하여 일부 학과를 무작위로 선택하고, 선택된 학과의 입학정원수에 비례하여 학년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학

과 조교의 협조를 받아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조사결과 유효한 설문지가 남자는 191부, 여자는 188부 수거되어, 남자의 결과 중 3명의 자료를 SPSS 프로그램의 무작위 선택 방법으로 제거한 후 남녀 각각 188명씩 총 37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평균 연령은 22.98(SD=2.74)세였고, 인문사회계열이 147명(39.1%), 자연계열이 162명(43.1%), 예체능계열이 67명(17.8%)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85(22.6%)명, 2학년이 83명(22.1%), 3학년이 98명(26.1%), 4학년이 110명(29.3%)이었다.

설문조사 시 본 연구의 목적을 설문조사 전에 충분히 설명하였고,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할 경우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 중 언제든지 의문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며, 비록 설문지 응답을 시작하였다더라도 중간에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공지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하는 시간은 개인차가 있으나 약 20분 정도였고, 응답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2. 연구 도구

2.1 자기수용

자기수용 척도는 서은경과 유성경[35]이 사용한 자기수용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수용 척도의 문항은 “중요한 어떤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해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큰 실수를 저지른다면 실망스럽긴 하겠지만, 내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등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일부 문항을 역채점하여 총합척도를 산출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12점~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6이었다.

2.2 가족용서

가족용서 척도는 이윤희와 서수균[34]이 타당화한 한국판 가족용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용서 척도는 총 19문항으로 상처에 대한 개방성(10문항), 상처에 대한

이해와 책임(5문항), 회복(4문항)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용서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을 살펴보면, “우리 가족은 가족 간에 상처를 주게 되면 상처 받은 가족의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 본다”(개방성), “우리 가족은 다툼이 있을 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애쓴다”(이해와 책임), “우리 가족은 용서는 해도 그 일을 결코 잊지는 않는다”(회복)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일부 문항을 역채점하여 총합척도를 산출하였다. 총합척도의 범위는 19점~9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용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가족용서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5이었다.

2.3 가족응집력

가족응집력 척도는 최태산과 홍경재[36]가 가족의 심리적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가족응집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응집력 척도는 “나는 가족들과 함께 집에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좋다”, “우리 가족은 서로 대화가 잘 통한다” 등의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일부 문항을 역채점하여 총합척도를 산출하였다. 총합척도의 범위는 5점~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응집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가족응집력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8이었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행된 통계분석은 IBM사의 SPSS 21.0

프로그램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주요 연구 변수들의 백분율과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하였고, 조절효과는 위계적 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조절효과에 대한 사후분석으로 독립변수의 수준에 따른 단순주효과분석을 분산분석으로 수행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성별에 따른 자기수용, 가족용서 및 가족응집력 간의 상관관계

자기수용, 가족용서 및 가족응집력 간의 상관관계와 각 변수의 총합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성별로 분할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남녀 모두 주요 연구변수인 자기수용과, 가족용서 및 가족응집력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 주요 연구변수 간 상관관계수 중에서 자기수용과 가족응집력 간의 상관계수($r=.59, p<.001$)가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여자 집단은 가족용서와 가족응집력 간의 상관계수($r=.59, p<.001$)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2. 자기수용 및 가족용서가 가족응집력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의 조절효과

자기수용 및 가족용서가 가족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별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표 2]. 성별은 여자를 -1, 남자

표 1. 성별 자기수용과 가족용서, 가족응집력 간의 상관관계행렬 (N=376)

변인	자기수용	가족용서	개방성	이해와 책임	회복	가족응집력	M(SD)
자기수용		.25***	.22**	.36***	.05	.36***	41.15(5.37)
가족용서	.35***		.96***	.56***	.76***	.59***	67.76(9.39)
개방성	.33***	.97***		.43***	.67***	.55***	36.35(5.55)
이해와 책임	.56***	.60***	.49***		.02	.55***	16.79(2.81)
회복	-.04	.76***	.70***	.03		.30***	14.62(3.30)
가족응집력	.59***	.34***	.32***	.55***	-.03		17.87(3.33)
M(SD)	41.89(6.10)	66.75(10.35)	35.79(5.92)	16.82(3.16)	14.13(3.64)	17.47(3.62)	

주. 대각선 아래는 남자, 위는 여자의 상관관계 행렬과 평균(표준편차)임.
** $p<.01$, *** $p<.001$

를 1로 대비코딩하였고, 성별과 자기수용 및 가족용서의 상호작용항은 자기수용과 가족용서 변인을 평균을 기준으로 중심화(centering)한 후 성별과 곱하여 구성하였으며, 회귀분석의 2단계에 투입하여 설명량의 유의한 증가와 상호작용항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표 2. 자기수용 및 가족용서와 가족응집력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N=3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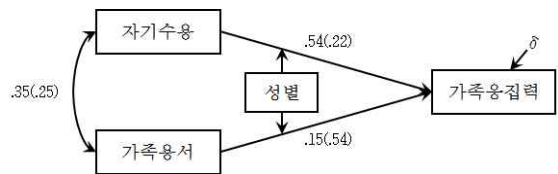
독립변수	모형 I		모형 II		VIF
	b	β	b	β	
상수	.08		-.05		
성별	-.22	-.06	-.23	-.07	1.01
자기수용	.23	.38***	.23	.38***	1.12
가족용서	.12	.34***	.12	.35***	1.11
성별×자기수용			.09	.15***	1.12
성별×가족용서			-.07	-.20***	1.11
$R^2(\Delta R^2)$.341		.384(.042)		
F	64.290***		46.108***(12.744***)		

***p<.001

대학생의 자기수용과 가족용서가 가족응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결과 자기수용과 가족용서는 가족응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자기수용, 가족용서 변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형 I의 설명량은 34.1%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R^2=.341$, $F=64.290$, $p<.001$), 자기수용($\beta=.38$, $p<.001$)과 가족용서($\beta=.34$, $p<.001$) 변인은 가족응집력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으나 성별은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대학생의 자기수용과 가족용서가 가족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기수용과 가족용서 모두 성별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성별과 자기수용, 가족용서 변인을 통제한 후 위계적으로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 II의 설명량은 38.4%($R^2=.384$, $F=46.108$, $p<.001$)로 모형 I에 비해 4.2% 유의하게 증가했으며($\Delta R^2=.042$, $F=12.744$, $p<.001$), 성별과 자기수용의 상호작용항($\beta=.15$, $p<.001$)과 성별과 가족용서의 상호작용항($\beta=-.20$, $p<.001$)이 모두 유의하였다. 모형 II의 Durbin-Watson값은 1.99로 나타나 오차항의 독립성을 가정하였으며,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로 확인한 결과 모두 1.01~1.12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성별의 조절효과가 자기수용과 가족용서 두 변인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자기수용 및 가족용서의 기울기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경로분석의 다집단 분석을 통해 자기수용과 가족응집력 간, 가족용서와 가족응집력 간의 경로계수(기울기)가 남녀 간에 어떻게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으며, 경로분석 모형과 성별 표준화된 경로계수 값은 [그림 1]과 같다.



주. 경로계수의 좌측은 남자, 우측 괄호 안은 여자의 표준화된 경로계수 값임.

그림 1. 자기수용 및 가족용서와 가족응집력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먼저 경로분석을 통해 자기수용과 가족응집력 간, 가족용서와 가족응집력 간의 경로계수가 남녀 간에 동일하다고 제약한 모형을 설정한 후 비제약모형과 χ^2 값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두 모형의 χ^2 값의 차이는 25.018이었고 자유도가 2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Delta\chi^2=25.018$, $p<.001$) 경로계수가 집단 간 동일하다는 제약이 부적합하였으므로, 경로계수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경로계수별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표 3], 자기수용에서 가족응집력 간의 경로계수는 남자($\beta=.54$, $p<.001$)가 여자($\beta=.22$, $p<.001$)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3.491$, $p<.001$), 가족용서와 가족응집력 간의 경로계수는 여자($\beta=.54$, $p<.001$)가 남자($\beta=.15$, $p<.05$)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t=4.580$, $p<.001$) 성별의 조절효과가 두 경로계수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자기수용과 가족응집력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와 가족용서와 가족응집력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서로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표 3. 자기수용 및 가족용서와 가족응집력 간의 경로계수에 대한 성별 차이 (N=376)

경로	집단	B	SE	β	t
자기수용 → 가족응집력	남자	.32	.04	.54***	-3.491***
	여자	.14	.04	.22***	
가족용서 → 가족응집력	남자	.05	.02	.15*	4.580***
	여자	.19	.02	.54***	

*p<.05, ***p<.001

표 4. 자기수용과 가족용서 상·하위 집단 별 성별에 따른 가족응집력의 차이 (N=376)

변수	집단	성별		F
		남자 M(SD)	여자 M(SD)	
자기수용	상(n=185)	19.18(3.22)	18.90(3.51)	.792
	하(n=191)	15.61(3.08)	16.98(2.91)	5.875*
가족용서	상(n=176)	18.37(3.38)	19.50(2.77)	6.831**
	하(n=200)	16.81(3.66)	16.16(3.01)	.882

*p<.05, **p<.01

상호작용항의 사후분석으로 단순주효과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가족응집력의 성별 차이를 자기수용 및 가족용서의 수준에 따라 분산분석하였다. 평균을 기준으로 중심화 한 자기수용과 가족용서 변인을 다시 평균을 기준으로 상·하위 집단으로 재분류한 후 각 집단별로 남녀 간 가족응집력의 차이를 분산분석 하였다[표 4]. 각 집단별 분산분석의 F값은 일원분산분석의 결과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독립변수와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전체 분산분석의 오차값을 사용하여 F값을 재계산한 후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였고, 재계산된 F값을 [표 4]에 제시하였다. 검증 결과 자기수용 상위 집단에서는 남녀 간

가족응집력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F=.792, ns), 하위 집단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가족응집력이 유의하게 높았다(F=5.875, p<.05). 가족용서 상위 집단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가족응집력이 유의하게 높았고(F=6.831, p<.01), 하위 집단에서는 남녀 간 가족응집력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882, ns).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족응집력을 높이기 위해 남자는 자기수용을, 여자는 가족용서를 증가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상호작용 효과를 집단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각각 도식으로 표현하면 [그림 2][그림 3]과 같다.

IV. 논의

자기수용과 가족용서가 가족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자기수용은 가족응집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측정도구의 차이가 있지만 가족관계와 자기수용의 유의한 관계를 밝힌 김지윤과 이동귀[2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김복인과 이인수[18]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 자녀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모 공감은 부와 모의 모든 공감 영역이 자기수용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 자기수용과 가족관계의 질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지지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자기수용이 가족응집력에 남녀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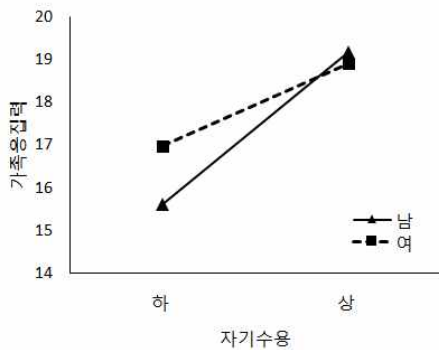


그림 2. 자기수용과 가족응집력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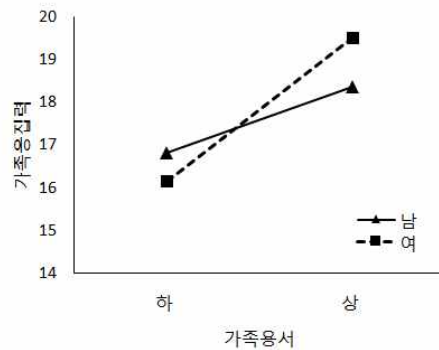


그림 3. 가족용서와 가족응집력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수용이 가족 관계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한 번 더 검증하였다. 그러나 자기수용이 가족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본 연구에서는 성별의 조절효과를 통해 검증한 결과 자기수용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가족응집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영[37]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성별차이를 보고하면서 여학생의 내재적 적응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낮으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스트레스로 인해 자아존중감이나 정서조절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는 남학생들이 더 내재적 적응이 높고, 스트레스가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이 더 낮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38]이 수행한 2012년도 환자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기분장애 환자의 59.8%가 여성이었고, 김사라형선[17]이 우울과 자기수용과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밝혔다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자신의 부정적인 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기수용의 역할이 남학생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 점과 관련이 있다. 자기수용은 스트레스 대처방식과도 유의한 상관이 있으며, 스트레스 대처 방식 중에서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영역이 여자가 더 높게 나타나[33],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내재적 적응이 낮고 더 높은 사회지지를 추구한다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자기수용과 가족응집력 간에 나타난 성별의 조절효과를 설명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가족응집력을 높이기 위해 남자들의 경우 자기수용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가족용서는 가족응집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가족응집력에 미치는 가족용서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희와 서수균[34]은 한국판 가족용서 척도를 개발하면서 가족용서 점수의 성차를 '남자는 목표 지향적이고 과제 중심적인 반면에 여자는 대인관계 중심적'이라는 Gilligan[39]의 주장을 인용하여 설명하며, 후속 연구를 기대하였다. 일반적으로 용서는 그 부정적 사건을 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박경미와 고재홍[24]의 연구에 따르면, 가정폭력 경험으로 나타나는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해 정서적, 인지적 용서 중에 인지적 용서만이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 신리나와 김득성[28]이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8회기의 남편 용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용서의 사전-사후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인지적 용서만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단지 잊거나 부정적 정서의 감소 정도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인지적 용서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용서라는 개념은 대인관계적 요소가 포함된 개념으로, 여성에게서 더욱 효과가 두드러진 것을 설명할 수 있겠다.

한편, 송강영[40]은 가족응집력의 향상을 위해 기혼 여성들의 여가활동을 권유하고 있다. 그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혼여성 1,360명을 체계적으로 표집하여 기혼 여성들의 여가활동 참여와 가족응집력에 대해 경로분석한 결과, 여가활동은 단절되었던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의사소통은 궁극적으로 가족응집력을 향상시키는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나, 여가활동을 통한 가족응집력 향상에 의사소통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는 여성들이 대인관계 중심적이라는 성차 심리학의 주장을 일부 설명하면서, 가족용서가 가족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이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 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받은 폭력경험은 대학생이 된 후에도 여전히 우울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지지와도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나[5], 가족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성인기까지 부정적 영향이 이어지는 것을 시사한다. 김진하 등[23]은 시간적 거리감과 용서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객관적으로 흐르는 시간이 저절로 사건의 심각성을 낮추거나 용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간적 거리감은 사건의 심각성, 용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해 볼 때, 가족 간의 용서는 단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버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가족용서의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제2차 가족실태조사에서 부부관계 향상을 위해 가장 하고 싶은 것으로 '여행을 가는 것'(29.5%)과 '공동의 취미 생활'(27.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1], Ceyhan과 Ceyhan[19]은 부부 간에 용서의 경험은 부부관계를 더

욱 더 낭만적으로 만들어 준다고 주장하여, 가족 간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여행이나 공동의 취미생활을 통해 가족용서의 경험을 확대하는 것은 가족응집력의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기수용과 가족용서는 상호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설명량이 남자는 12.2%, 여자는 6.2%로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Epstein과 Feist[22]의 연구에서 자기수용이 타인수용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지만,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곧 용서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수용과 가족용서의 개념이 서로 변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수용도 대인관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으나[17], 용서는 구성 개념 자체에 대인간 특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으로 세분되어 있어(Enright, 2004; 김진하 등, 2012에서 재인용)[23] 자기중심의 수용과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의 차이는 성별 심리학과 상호 연계되어 가족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 조절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본 연구에서는 자기수용과 가족용서가 가족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나타난 결과에 대해, 우리나라의 문화 특성상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가 발생했을 때, 남자는 누군가에게 호소하기 보다는 '무시'와 같은 남자답게 보이는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사회화 되었고, 여성은 타인과 대화를 하는 등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반응하는 형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해할 수 있으며[34], 이러한 주장과 맞물려 가족응집력의 향상에 남자는 자기수용이, 여자는 가족용서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여성가족부의 제2차 가족실태조사에서 가족친화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가족관계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1], 청소년 자녀를 둔 성인들의 연령대가 대부분 40대 이상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대학생 학부모들의 가족관계 회복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가족관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일이 필요하며, 남자는 자기수용을, 여자는 가족용서

가 가족응집력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반영하여 남자에게는 자기수용을 명료화하고 가족용서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더하고, 여자의 경우도 자기수용 능력을 기르고 가족용서의 경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응집력 변인을 이해하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 가족응집력은 가족 간 밀착과 분리가 너무 높거나 낮아서는 안 된다는 견해와 가족응집력은 높을수록 좋다는 견해가 존재하므로 추후 가족응집력 수준을 구분하는 측정도구를 이용해 후속 연구를 수행해 비교해 볼 수 있다. 둘째, 연구 대상을 청소년 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으로 한정하였으나 추후 더욱 다양한 연령층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교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서울 지역의 한 대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연구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전국적인 표집을 통해 일반화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가족용서가 가족응집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하였으며, 더욱이 성별에 따라 가족응집력에 자기수용과 가족용서가 미치는 영향의 수준을 분리하여 분석해,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여성가족부,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2010.
- [2] 이영미, "대학생의 알코올 사용장애, 가족응집력, 자아존중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24권, 제2호, pp.155-163, 2011.
- [3] L. Ierago, C. Malsol, T. Singeo, Y. Kishigawa, F. Blailes, L. Ord, P. Florsheim, L. Phillips, S. Kuartei, J. Tiobech, B. Watson, and H. Ngiralmu, "Adoption, family relations and psychotic symptoms among Palauan adolescents

- who are genetically at risk for developing schizophrenia,” *Social Psychiatry Epidemiology*, Vol.45, pp.1105-1114, 2010.
- [4] 장윤옥,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과 대처행동과의 관계에서 가족건강성의 조절효과”, *중등교육연구*, 제61권, 제1호, pp.231-260, 2013.
- [5] 이정숙, 구형선, 조인주, “대학생의 성장기 아동학대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구조적 관계 분석-가족지지, 친구지지,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41권, 제1호, pp.143-168, 2013.
- [6] L. Sheeber, H. Hyman, A. Alpert, B. Davis, and J. Andrews, “Family support and conflict: Prospective relations to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25, No.4, pp.333-344, 1997.
- [7] 김민경, “대학생의 가족스트레스, 부정적 정서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제29권, pp.34-57, 2012.
- [8] 최윤신, 김혜련, 김한나, “대학생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알코올 중독, 가족기능, 우울의 구조적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제35권, pp.105-144, 2012.
- [9] L. Zayas, C. Bright, T. Álvarez-sánchez, and L. Cabassa, “Acculturation, Familism and Mother-Daughter Relations Among Suicidal and Non-Suicidal Adolescent Latinas,”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Vol.30, pp.351-69, 2009.
- [10] 임정섭, 최영임, 김교현, “대학생들의 가족관계 만족과 자아정체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제25권, 제1호, pp.151-167, 2012.
- [11] 윤우석, “가족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의 양육과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검증”, *형사정책연구*, 제85권, pp.137-172, 2011.
- [12] T. Cassidy, “Family Background and Environment, Psychological Distress, and Juvenile Delinquency,” *Psychology*, Vol.2, No.9, pp.941-947, 2011.
- [13] 정영숙, 조설애, 안정신, 정여진, “한국 노인의 삶의 의미 원천으로서 가족관계와 자기초월가치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25권, 제1호, pp.19-41, 2012.
- [14] 최정선, 이정우, “도시주부의 가족응집력·적응력이 가정관리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7권, 제3호, pp.63-81, 1999.
- [15] L. Juang and A. Alvarez, “Discrimination and Adjustment Among Chinese American Adolescents: Family Conflict and Family Cohesion as Vulnerability and Protective Factor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100, No.12, pp.2403-2409, 2010.
- [16] 권중돈, 김동기, 김기수, 박수진, “노인의 가족응집력, 스트레스, 우울 및 문제음주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3권, 제3호, pp.3-25, 2012.
- [17] 김사라형선,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우울, 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조절효과”, *아동학회지*, 제33권, 제3호, pp.119-130, 2012.
- [18] 김복인, 이인수,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감과 행복과의 관계: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0권, 제6호, pp.195-218, 2013.
- [19] A. Ceyhan and E. Ceyhan, “Investigation of University Students’ Self-Acceptance and Learned Resourcefulness: A Longitudinal Stud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er Education and Educational Planning*, Vol.61, No.6, pp.649-661, 2011.
- [20] C. Ryff and C. Keyes,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3, pp.549-559, 1995.
- [21] 김지윤, 이동귀, “여고생의 가족관계 및 가정경제수준에 대한 자기불일치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의 조절 역할”, *상담학연구*, 제13권, 제3호, pp.1443-1460, 2012.

- [22] S. Epstein and G. Feist, "Relation between self- and other-acceptance and its moderation by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4, pp.309-315, 1988.
- [23] 김진하, 김미정, 현명호, 허정선, "시간적 거리감이 사건의 심각성과 용서 과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1권, 제3호, pp.961-974, 2012.
- [24] 박경미, 고재홍, "청소년 가중폭력 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 간의 관계: 용서의 역할", *청소년상담연구*, 제21권, 제1호, pp.257-274, 2013.
- [25] 한형준, 이희경, "용서신념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를 통한 용서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제13권, 제2호, pp.761-777, 2012.
- [26] R. Brown,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tendency to forgive: Construct validity and links with dep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29, pp.759-771, 2003.
- [27] 김현주, 안현의, "공감능력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용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3권, 제1호, pp.157-174, 2011.
- [28] 신리나, 김득성, "중년기 아내를 위한 남편 용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8권, 제3호, pp.3-23, 2013.
- [29] F. Fincham, J. Hall, and S. Beach, "Forgiveness in Marriag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Family Relations*, Vol.55, No.4, pp.415-427, 2006.
- [30] 박종효, "용서, 성격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련성 탐색", *교육심리연구*, 제26권, 제4호, pp.927-949, 2012.
- [31] M. Wohl, L. DeShea, and R. Wahkinney, "Looking Within: Measuring State Self-Forgiveness and Its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Vol.40, No.1, pp.1-10, 2008.
- [32] A. Macaskill, "Differentiating Dispositional Self-Forgiveness from Other-Forgiveness: Associations with Mental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31, No.1, pp.28-50, 2012.
- [33] 김광웅, "자아존중감 및 자기수용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9권, 제4호, pp.983-999, 2007.
- [34] 이윤희, 서수균, "한국판 가족용서 척도 개발 및 가족용서와 청소년의 또래관계 사이에서 또래신뢰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4권, 제1호, pp.69-95, 2012.
- [35] 서은경, 유성경, "수퍼바이저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개인 수퍼비전 작업동맹의 관계: 수치심, 자기수용, 인지대처의 매개효과 - 상담수련생과 상담자격증 소지자 집단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4권, 제1호, pp.1-26, 2012.
- [36] 최태산, 홍경자,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심리적 변인분석", *교육심리연구*, 제11권, 제2호, pp.291-322, 1997.
- [37] 김소영, "고등학생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정서조절,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 다집단 분석을 통한 성별 차이 탐색", *청소년문화포럼*, 제35권, pp.92-113, 2013.
- [3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도 환자조사*, 보건복지부, 2013.
- [39] C. Gilligan,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 [40] 송강영, "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와 의사소통, 가족스트레스,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6권, 제6호, pp.155-162, 2005.
- [41] 서신자, 정민숙, "가족탄력성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 pp.262-274, 2013.

저 자 소 개

신 선 화(Sun-Hwa Shin)

정회원



- 1997년 2월 : 삼육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12년 3월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과정
- 2002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외래교수

<관심분야> : 성인간호학, 보건

정 구 철(Goo-Churl Jeong)

정회원



- 2002년 2월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문학사)
- 2010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 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심리학, 교육학, 보건